

Cheongju International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

Craft

물성의 서사

*Hands in Sequence:
A Narrative of Material*

Competition

2025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물성의 서사

*Hands in Sequence:
A Narrative of Material*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2025

목차

Table of Content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004
심사위원장 심사평	Competition Commentary	006
심사위원	Judging Committee	010
2025 공모전 개요	Overview of the 2025 Competition	014
2025 공예공모전 수상작	Winners of the 2025 Competition	042
수상작품 색인	Index of Artworks	176
작가정보	Artist Profile	182

축사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공예공모전’이 다시 한 번 세계의 공예 창작자들을 맞이합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와 함께 27년 역사를 이어온 본 공모전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공예의 흐름을 조망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국제 공예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역대 최다인 71개국, 99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청주가 공예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음을 다시금 입증해 주었습니다.

출품작들은 전통 재료의 재해석, 새로운 물질에 대한 실험, 감각적 질감의 탐구 등 다채로운 접근을 통해 재료와 인간,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섬세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예가 단지 손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방식을 성찰하는 하나의 언어임을 보여주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심사는 국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단의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작품의 조형성, 창의성, 완성도는 물론 주제 해석과 물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까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은 단순한 전시의 자리를 넘어, 동시대 공예가 마주한 질문과 가능성을 교차시키는 지적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작가분의 성실한 실천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귀중한 문화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청주는 앞으로도 공예의 전통과 동시대를 잇는 도시로서, 창의적 실험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예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공예의 이야기가 물성을 넘어 인간과 예술, 그리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 9.

청주시장,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
이 범 석

Congratulatory Remarks

The 2025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once again welcomes craft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Held in tandem with the 27-year history of the Cheongju Craft Biennale,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craft that both reflects the currents of global craft and proposes new discourses. This year, a record 990 artists from 71 countries participated, once again affirming that Cheongju is a city engaging with the world through craft.

The works submitted to this year's competition delicately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 and human, as well as nature and society, through a wide range of approaches—from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materials and bold experiments with new substances, to the exploration of sensory textures. These are significant achievements that demonstrate craft is not simply the product of manual dexterity, but a language for interpreting the world and contemplating our ways of life.

The judging process was carried out both rigorously and fairly by a panel of judges with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rofessional expertise. They carefully evaluated each work—not only its form, creativity, and level of completion, but also the artist's attitude, as reflected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them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materiality.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is more than a site for exhibition—it is an intellectual space in which the questions and possibilities facing contemporary craft converge. The sincere practices of all the artists who have taken part will ultimately stand as meaningful cultural efforts to connect and understand different worlds through craft.

Cheongju will continue to serve as a city that bridges the traditions of craft and the contemporary era, shaping the future of art through creative experiment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We hope that the story of craft unfolding here in Cheongju will become a light that illuminates new directions for humanity, art, and life beyond materiality.

Thank you.

Sep 2025

Mayor of Cheongju,
Chairman of the Cheongju Craft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LEE Beom-seog

심사위원장 심사평

세계 최초의 공예비엔날레라는 자긍심을 갖고 출범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어느덧 사반세기에 이르면서 세계 공예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또한 역량을 갖춰 작가 발굴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공예인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그 결과로 이번 공모전엔 세계 71개국에서 도자와 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공예품 총 990여 점이 출품됐다. 출품된 작품들은 대체로 뛰어난 기술을 통해 재료의 물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였다. 그 가운데 몇몇 작품은 돋보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심사위원의 관심을 모았다. 일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자공예 '일식 달항아리(Eclipse Moon Jar)'는 조선백자의 흰색 달항아리를 브라질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는 작품이다. 순백의 백자 달항아리는 절제와 겸손함을 중시하는 유교와 자연과 상응하며 소박(素朴)함을 강조하는 도교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달항아리를 개기일식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 검은색 달항아리로 재탄생시킨다. 검은색은 브라질의 역사에 있어 인권, 저항, 연대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백자 달항아리는 인류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검은색 달항아리로 변형된다. 흥미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표면을 장식한 투각기법의 정교함에 있다. 그것은 마치 예술의 아원이 과거 기술(techné)의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입증이나 하듯이, 기술 자체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의 배우엔 작가가 감수해야 할 인고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종이공예 '시간의 향기(Scent of Time)'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감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함과 정교함은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특별한 인쇄성이 요구되는 작품에는 시각적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작가의 인격이 스며들어 있다. 그것은 당장에 눈앞의 성과보단 장고의 노력 끝에 오는 성과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함을 뜻한다. 그래서 시간의 향기는 인간적 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는 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 '일지(日誌)'가 있다. 외관상 무척 단순하고 묵직해 보이는 육면체의 구조에 뒤편은 완만하게 패인 상태의 곡면을 이루고 있다. 그 위에는 검게 산화된 기다란 원통 모양의 기둥이 가로로 놓여 있는데, 실제로 곡면 위에서 기둥을 굴리면 중력과 운동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계추와 같은 동작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닥 면에 짙은 먹색은 티난을 함유한 나무가 오랜 시간 부식된 철(기둥)과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산화된 철 기둥이 오랫동안 나무 위를 구르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둥 속에는 소량의 쇠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굴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여기에는 기둥과 나무와의 마찰에서 나오는 소리도 일부 포함된다) 한번 굴릴 때마다 기둥은 관성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해서 구르면서 소리를 낸다. 이처럼 작품 '일지(日誌)'는 사물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인연, 중력, 운동에너지, 부식, 관성 등과 같은 자연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은 물질 스스로 또는 물질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작품으로부터 자연과 우주의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없는 침묵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Competition Commentary

The Cheongju Craft Biennale, which began with the pride and honor of being the world's first craft biennale, has now reached the milestone of a quarter-century and established itself as a historic site reflecting the global currents of contemporary craft.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has likewise garnered international attention for its role in discovering talented artists. This year's competition drew over 990 entries from 71 countries, featuring works crafted from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ceramics and metals. Many of the submitted pieces stood out for their artistic expression of materiality through exceptional technical skill. Among them, several works captured the jury's attention with their outstanding ideas and craftsmanship. Following are a few notable examples.

The ceramic work *Eclipse Moon Jar* is striking in its re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Joseon white porcelain moon jar from the perspective of a Brazilian artist. The pure white moon jar, deeply rooted in the aesthetics of Confucianism—with its emphasis on restraint and frugality—and the Taoist appreciation for simplicity and harmony with nature, is reimagined as a black moon jar inspired by the natural phenomenon of a total solar eclipse. Within the context of Brazilian history, the color black carries symbolic associations with human rights, resistance, and solidarity. Consequently, the white moon jar takes on new meaning with its transformation into a black moon jar, becoming a vessel imbued with humanitarian significance. Yet beyond this compelling concept, what truly stands out is the exquisite precision of the openwork technique that adorns the jar's surface. The sheer craftsmanship is awe-inspiring and serves as a powerful reminder that the etymology of the word "art" lies in techné, the ancient term for skilled craft.

Behind every work of exceptional technical mastery lies an artist's time of patience and endurance. In this regard, the papercraft piece *Scent of Time* vividly conveys those countless hours of dedication the artist endured. Its almost unimaginable delicacy and precision seem to challenge the very limits of human capability. Works that demand such extraordinary patience possess not only visual beauty but also reflect the character of the artist. They signify a kind of maturity—the ability to wait for the fruits of long and deliberate labor rather than chasing immediate results. Perhaps, then, the true "scent of time" is born from maturity as a human being.

One work that stood out for its particularly imaginative concept is the piece *Log*, which takes wood as its medium. A gently concave curve is carved along the top surface of what at first glance appears a simple and heavy hexahedron structure. Cradled atop it is a long, horizontally oriented cylindrical column, blackened due to oxidation. When this column is rolled across the curved surface, the interaction between gravity and kinetic energy produces a motion reminiscent of a clock's pendulum. The dark ink-like stain under the column is the result of prolonged contact between wood containing tannins and the corroded iron column. In other words, as the oxidized iron column rolled across the wood over time, it left behind these traces. Inside the column is a small amount of iron powder which produces a subtle sound as the column rolls, augmented by the friction between the metal and the wood. With each roll, the column continues to move and make sounds for some time under the force of inertia. What infuses *Log* is the artist's strong intention to minimize artificial intervention. Instead, the artist relies on natural forces such as gravity, kinetic energy, corrosion, and inertia.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섬유공예 ‘해프닝(Happening)’이다. 한 뼘, 한 뼘 이어간 손바느질만 봐도 이 작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가늠게 한다. 작품 ‘해프닝’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를 양가적 감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전면에 만들어진 무늬는 고요함이 감도는 한 폭의 수묵산수화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후면에 남겨진 바느질의 흔적은 전면과는 달리 그 자체로 무질서하며 혼란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때 작가는 양면 모두를 동시에 보여주길 원한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세계의 이면에는 혼잡하고 무질서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양면의 상태가 서로 배치되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 즉 후면의 혼란한 상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면의 조화로운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때 우리는 양가적 감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삶의 조건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차원의 평온함을 얻게 된다. 손바느질이 이렇듯 삶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코이누르와 친구들(KOH-I-NOOR and Friend)’이다. 코이누르는 제국의 오래된 문구 제조 회사의 브랜드다. 브랜드를 작품명에 사용한 것은 작가에게 그만큼 친숙한 것임을 말해준다. 작품의 구성물은 코이누르 브랜드를 상징하는 연필과 고무지우개로 이뤄져 있으며, 다양한 원석을 가공해 만든 것들이다. 자연 상태의 돌을 공들여 자르고 갈아서 만든 문구들은 기능이 제거된 오브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과거의 느낌을 현재화시키는 통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얻게 된다. 몽당연필과 마모된 채 이런저런 형태의 크고 작은 지우개들은 평범한 사물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삶을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작품 ‘코이누르와 친구들’은 일상적 삶의 세계에서도 상징적 창조 행위를 통한 미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예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작품이말로 가장 공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은 여러 차례의 심사와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최종 심사 단계에 이르면서 심사위원들 간에는 공예의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화가 오갔다. 공예의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공예의 기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둬야 할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 최상위 그룹에 들어갈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선 선정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함께 숙의하면서 결정해 나 갔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심사에 참여한 위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집대전 도자대학의 장영원 교수, 태국 ATTA 갤러리 대표 아티누이 아티 탄티비트, 뉴욕대 주디스 슈와르츠 명예교수, 이탈리아 오토마베르의 큐레이터 장 블랑샤르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윤소림의 노력 덕분에 2025 청주국제공예전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늘 건강간 가운데 멋진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행운이 함께하기를 빈다.

심사위원장 정 연 택

Thus the work is born from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that occur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materials or within a single material. The moment we sense the faint resonance of nature and cosmos emanating from *Log*, we find ourselves drawn into an unknowable world of silence.

The next piece deserving of mention is the textile craft work, *Happening*. Even a quick glance at its countless hand-sewn stitches reveals the immense time and patience invested in its making. What most distinguishes *Happening* is its ability to draw us into a world of ambivalent feelings. The pattern on the front evokes the quietness of an ink wash landscape painting. In contrast, the reverse side with its tangle of stitching is a revelation of disorder and chaos in and of itself. The artist intentionally presents both sides at once, inviting us to reflect on the reality that behind every outwardly beautiful world lies another hidden world of chaos and disorder. Yet the true beauty of the work lies in recognizing that both sides—though in contrast—are inextricably connected: without the chaotic underside, the harmonious front could not exist. This realization evokes a sense of ambivalence; however, as we come to accept that the conditions of life are inevitably bound to the absurdity of reality, we may also arrive at a type of serenity—one unlike anything we’ve known before. That hand-stitching can lead us to such reflections on life is, in itself, astonishing.

The final piece is *KOH-I-NOOR and Friends*. KOH-I-NOOR is the name of a long-standing Czech stationery brand, and its use in the title reflects the artist's personal familiarity with and fondness for it. The work is composed of pencils and erasers—iconic symbols of the KOH-I-NOOR brand—crafted from a variety of gemstones. Painstakingly cut and polished from raw stone, these objects are transformed into sculptural forms, stripped of their functions as stationery items. Yet they take up a new function, serving as a catalyst evoking past memories and bringing

former emotions into the present. The worn-down pencils and erasers of various shapes and sizes may seem like nothing more than ordinary items. Nevertheless, the symbolism they carry plays a role in enriching our inner lives. In this sense, *KOH-I-NOOR and Friends* demonstrates how, even within the realm of mundane everyday life, aesthetic experience can arise through symbolic acts of creation. Seen from this perspective—where craft is closely bound to daily life—*KOH-I-NOOR and Friends* may, in fact, be the work that speaks of the essence of craft itself.

The selection of works included multiple rounds of review and discussion. Throughout the final stage, the members of the judging panel engaged in earnest conversations about key issues in craft. Topics included how digital technology should be viewed or integrated within the realm of craft and how much weight should be given to functionality in the evaluation criteria. During the final phase of choosing the shortlisted works, each juror was given time to explain their reasoning and seek mutual understanding. This process was marked by collective deliberation, with the jurors working together to make fair and rational decisions. The smooth progress of the competition judging was made possible entirely thanks to the dedication and cooperation of the judging pane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deep gratitude to Zhang Lingyun of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Atinuj Atty Tantivit, director of ATTA Gallery in Thailand; Professor Emeritus Judith S. Schwartz of New York University; Jean Blanchaert, curator of Homo Faber in Italy; and Yoon Sorim,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It was thanks to their thoughtful contributions that the judging process for the 2025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was carried out successfully. I wish them continued health and happiness, and great success in all their future endeavors.

JUNG Youn-taeg
Chair of the Judging Panel

심사위원

정연택

심사위원장
공예연구자,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주요 이력
2022 <옹기의 미학> 예술감독, 국가유산진흥원
2021-2022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
2015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관 <자금, 한국> 기획, 한국공예다자인문화진흥원
2014-2016 서울시 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자문위원
2013-2014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센터 이사

저서
2020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2012 '조선의 일이 담긴 백자의 세계,

JUNG Youn-taeg

Chair of the Judging Committee
Professor Emeritus at Myongji College; Craft Researcher

Achievements
2022 Artistic director, *Ethetics of Onggi*, Korea Heritage Agency
2021-2022 Committee member, Craft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 Curator, Korea Now! at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2014-2016 Establishment Committee advisory member, Seoul Museum of Craft Art
2013-2014 Board member, Korea Intangible Heritage Promotion Center

Publications
2020 *Making My Own Ceramics*
2012 *The World of White Porcelain Embodying the Spirit of Joseon*

Judging Committee

윤소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예연구자

주요 이력
2018-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2009-2011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전시 기획 및 교육 운영

전시 기획
2024 <한국 현대 도지공예: 명함의 지금에서 늘 새로운>, 국립현대미술관
2023 <동넌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YOON Sorim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Craft Researcher

Achievements
2018-present Curator, MMCA
2009-2011 Exhibition planning and education at the Korea Ceramic Foundation and Gyeonggi Ceramic Museum

Curated Exhibitions
2024 *Unfolding the Dynamics of Modern Ceramics in Korea*, MMCA
2023 *Strolling Through Nature: The Dongsan Park Joohwan Collection*, MMCA

아타누이 아티 탄티비트

태국 아타누이 갤러리 대표,
공예기획자

주요 이력
2010-현재 아타 갤러리 대표 이사, 태국 방콕 아트주얼리포럼
2023 젊은예술가상 심사위원, 미국
2019 아타미 국제주얼리공모전 심사위원, 일본 이타미
2014 2014 태국인노베이션어워드 수상, 태국 패션산업 주얼리 분야 대표, 태국

전시 기획
2015 <새로이 협상>, 빌크 갤러리,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게이저 갤러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2013 <마리포사>, 아마란토 조이스 갤러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Atinuj Atty TANTIVIT

Director of ATTA Gallery, Thailand;
Supporter and Promoter of Craft

Achievements
2010-present Managing director, ATTA Gallery, Bangkok, Thailand
2023 Juror, Art Jewelry Forum's Young Artist Award, USA
2019 Juror, ITAMI International Jewellery Exhibition, Itami, Japan
2014 Recipient, Thailand Innofashion Award 2014 for being an inspiration and influencer in the field of jewelry in the Thai Fashion industry, Thailand

Curated Exhibitions
2015 *Anew Negotiation*, Bilk Gallery, Canberra, Australia and Gauge Gallery, Sydney, Australia
2013 *Mariposa*, Amaranto Joies Gallery, Barcelona, Spain

장 블랑샤르

블랑샤르 갤러리 대표,
공예기획자

주요 이력
2007-현재 베니스글라스워크 과학위원회 위원, 이탈리아
2018-현재 '아르 에 도시에르', 매거진 기고자
2021 유러피안글라스콘텍스트 심사위원, 덴마크 보른홀름
2018-2024 호모파베르 비엔날레 큐레이터, 이탈리아

전시 기획
2024 <토니 크랙: 유리의 형태들>, 이탈리아 원경기금 및 베렝고재단, 이탈리아 베니스
2018-2024 호모파베르 비엔날레, 이탈리아
2019 <멤피스: 플라스틱 필드>, 장식미술 및 디자인 박물관, 프랑스 보르도

Jean BLANCHART

Director of Galleria Blanchaert, Italy;
Craft Curator

Achievements
2007-present Scientific Committee, The Venice Glass Week, Italy
2018-present Contributor, *Art e Dossier*
2021 Juror for the European Glass Context, Bornholm, Denmark
2018-2024 Curator, Homo Faber, Italy

Curated Exhibitions
2024 *Tony Cragg: Le forme del vetro*, FAI - Fondo per l'Ambiente Italiano and Fondazione Berengo, Venice, Italy
2018-2024 Homo Faber Biennial, Italy
2019 *Memphis: Plastic Field*, Musée des Arts Décoratifs et du Design, Bordeaux, France

장량윈

징더진 도자대학 교수,
작가, 큐레이터

주요 이력
국제도자협회(IAC) 회원
중국 징더진 타오시찬 수석예술고문

전시 기획
2017 <어느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국제현대도예전>, 중국 징더진
2019 <이국의 아우라: 30개국현대도예전>,
중국 징더진

저서
2021 '수제 도자기',

소장
화이트채플 갤러리, 런던, 영국
중국도자박물관, 징더진, 중국
프린센호프 박물관, 델프트, 네덜란드

ZHANG Lingyun

Professor at Jingdezhen Ceramic University;
Artist; Curator

Achievements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IAC)
Senior art advisor, Taoxichuan, Jingdezhen, China

Curated Exhibitions
2017 *No Man Is an Island: International Modern Ceramic Art Exhibition*,
Jingdezhen, China
2019 *Aura of Distant Lands: 30 Nations Modern Ceramic Art Exhibition*,
Jingdezhen, China

Publications
2021 *Handmade Ceramic Ware*

Collections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China Ceramics Museum, Jingdezhen, China
Museum Prinsenhof Delft, Netherlands

주디스 슈와르츠

뉴욕대 명예교수,
공예연구자

주요 이력
2001-현재 도자공예미술관 이사회 회장,
미국 뉴욕
2014-2020 국제도자협회(IAC) 부회장

전시 기획
2016 <재료에 관하여>, 뉴욕대학교, 미국
2014-2017 <도발하는 도예>, 미국중부예술연맹
순회 전시 프로그램

저서
2008 '비판적 도예: 사회 비평가로서의
예술가',

수상
2021 워터셰드레전드어워드,
워터셰드 도예 센터,
미국 메인주 뉴캐슬
아트웨스트체스터어워드
에밀리&유진그랜트예술후원자상,
미국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즈

Judith S. SCHWARTZ

Professor emeritus at New York University;
Craft Researcher

Achievements
2001-present
President, Board of Trustees, Museum of Ceramic Art, NY, USA
2014-2020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IAC)

Curated Exhibitions
2016 *Material Matters*, New York University, USA
2014-2017
InCiteful Clay, Exhibits USA,
Mid-America Arts Alliance (touring exhibition)

Publications
2008 *Confrontational Ceramics: The Artist as Social Critic*

Awards
2021 Watershed Legends Award,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Newcastle, Maine
2021 Emily & Eugene Grant Arts Patron Award,
ArtsWestchester Awards, ArtsWestchester,
White Plains, New York

2025 공모전 개요

1999년 시작한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은 국내외 공예 작가를 대상으로 역량을 펼치고 성장시키는 글로벌 발굴 플랫폼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예작가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집 1년 전부터 공고를 오픈하며, 세계 각지의 공예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은 그 해 개최하는 청주공예비엔날레에서 특별 전시로 선보이며, 대상 수상작가는 향후 출판, 전시, 글로벌 전시 참여 등 후속 프로젝션을 지원합니다.

Th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launched in 1999, serves as a global platform for discovering and fostering the talents of craft artists worldwide. To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a diverse range of international artists, the call for entries is announced one year in advance, with expert judges from around the world taking part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winning entries of the competition will be showcased in a special exhibition at the Cheongju Craft Biennale, and the Grand Prize winner will receive continued promotional support, including publication, exhibition opportuniti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진행과정

- 1차 심사
접수기간: 2025년 3월 24일 ~ 5월 2일
공모전 웹사이트를 통한 접수 및 온라인 심사 후 통과작 선정
- 2차 심사
심사기간: 2025년 7월 말
작품 실물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선정

Process

- 1st Screening
Application Period: From March 24 to May 2 , 2025
Submit applications via the official website.
Selected entries are chosen by an online screening process.
- 2nd Screening
Screening period: End of July 2025
Final winners are selected through an in-person evaluation of the actual artworks.

국가별 접수 현황

총 990건(이중국적 6건) 접수		Total 990(6 Dual nationalities) Submission	
	국내 Domestic	해외 Overseas	
소계 Subtotal	511	WCC 회원기관 WCC Members	일반 General
합계 Total		7	472
		990	

Overview of the 2025 Competition

접수작 국가별 분류: 총 71개국			71 Countries in Total				
대한민국 Korea	511	중국 China	115	대만 Taiwan	45	미국 USA	24
러시아 Russia	20	이란 Iran	19	튀르키예 Türkiye	17	인도 India	14
스리랑카 Sri Lanka	13	독일 Germany	12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12	태국 Thailand	12
폴란드 Poland	11	스페인 Spain	9	영국 United Kingdom	9	일본 Japan	9
프랑스 France	9	말레이시아 Malaysia	7	네덜란드 the Netherlands	6	인도네시아 Indonesia	6
헝가리 Hungary	6	이스라엘 Israel	5	이탈리아 Italy	5	캐나다 Canada	5
벨라루스 Belarus	4	브라질 Brazil	4	싱가포르 Singapore	4	우크라이나 Ukraine	4
핀란드 Finland	4	그리스 Greece	3	뉴질랜드 New Zealand	3	덴마크 Denmark	3
라트비아 Latvia	3	멕시코 Mexico	3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3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2
노르웨이 Norway	2	루마니아 Romania	2	몽골 Mongolia	2	베트남 Vietnam	2
벨기에 Belgium	2	스위스 Switzerland	2	아일랜드 Ireland	2	에스토니아 Estonia	2
요르단 Jordan	2	칠레 Chile	2	콜롬비아 Colombia	2	필리핀 the Philippines	2
가나 Ghana	1	네팔 Nepal	1	리투아니아 Lithuania	1	마카오 Macau	1
모로코 Morocco	1	모리셔스 Mauritius	1	몰도바 Moldova	1	바레인 Bahrain	1
방글라데시 Bangladesh	1	불가리아 Bulgaria	1	세르비아 Serbia	1	스웨덴 Sweden	1
슬로베니아 Slovenia	1	오만 Oman	1	오스트리아 Austria	1	우루과이 Uruguay	1
이집트 Egypt	1	체코 Czech Republic	1	트리니다드 Trinidad	1	파키스탄 Pakistan	1
팔레스타인 Palestine	1	페루 Peru	1	홍콩 Hong Kong	1	이중국적 Dual Nationality	6

수상 현황

국가별 수상현황:
총 24개국(이중국적 포함) 99명

△ Total of 24 Nationalities
out of 99 Award Winners

한국 Korea	63	중국 China	7	미국 USA	4
대만 Taiwan	2	독일 Germany	2	영국 United Kingdom	2
인도 India	2	캐나다 Canada	2	네덜란드 Netherlands	1
덴마크 Denmark	1	마카오 Macau	1	브라질 Brazil	1
스위스 Switzerland	1	싱가포르 Singapore	1	아일랜드 Ireland	1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1	이스라엘 Israel	1	이탈리아 Italy	1
인도네시아 Indonesia	1	일본 Japan	1	체코 Czech Republic	1
포르투갈 Portugal	1	프랑스 France	1	핀란드 Finland	1
		이중국적 Dual Nationality	2	합계 Total	99

Awards Information

공예 분야별 수상현황:
총 6개 분야 99점

△ Total of 6 Categories
out of 99 Artworks

분야 Category	작품 수 Number of Artworks	분야 Category	작품 수 Number of Artworks
도자 Ceramics	27	금속 Metal	18
삼류, 종이 Textiles, Papers	18	나무 Wood	16
주얼리 Jewellery	12	기타 Others	8

2025 수상작 전시

물성의 서사

여섯은 우연한 것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공모전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발신한다.

‘공예의 동시대성과 미래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

지금의 정서를 반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능하는, 만드는 자가 스스로 공예라고 의식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면 공모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느슨한 제한 속에서 작가들은 각자 자유로움을 탐색하고 작품을 통해 공예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은 71개국에서 모인 990의 작품 중 99점을 입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작품들은 마치 임의로 선정된 듯 개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그 무작위하고 우연인 세계들이 모여 어떠한 규칙과 공통성을 이뤄내기도 한다.

작가의 수만큼이나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세계는 개별적이지만 그것을 배열하는 순서와 모으는 방식을 달리하며 새로운 서사가 탄생한다.

‘쓰임과 미’라는 두 공간을 두고 한 발짝 더 나아간 제안 (1부 응답하는 손길)을 지나면, 일상을 낯설게 대하여 작가적 의식에 더 다가간 시도(2부 되묻는 시선)들이 모여 있다. 점진적으로 분절되는 시각적 경험을 지나 이윽고 하나의 점과 같이 홀로 서 있는 수상작들은 두 서사를 모두 포용한 시작 세계(3부 머무는 결)가 된다.

1999년 공예비엔날레의 시작과 함께 일관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이어온 공모전은 이제 각 시기별 동시대 작가가 공유하는 정서를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공시성), 27년간 변화한 세계 공예의 흐름을 추적 가능한 수단(통시성)의 역할까지 갖추게 되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감각이 축적된 결과물은,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다. 공모전은 그 실험의 장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2025 Winners Exhibition

Hands in Sequence: A Narrative of Material

This is the process of accidental elements come together to form a narrative.

The theme of the 2025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is conveyed in a single phrase: "Works that present the contemporaneity and future of craft." Any work or result that reflects the sentiments of the present, anticipates the direction ahead, and is consciously recognized by its maker as craft is eligible for submission. Within these loosely defined parameters, artists are welcome to explore their own sense of freedom and propose new possibilities for craft through their works.

The 2025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selected 99 works for exhibition from among 990 entries submitted by artists from 71 countries. Each work may at first glance appear to tell its own individual story, as if selected at random. However, these seemingly arbitrary and coincidental worlds unite to form structure and commonalities.

The worlds pursued through each work are as individual as the number of artists themselves, yet by altering the order in which they are arranged and the ways in which they are brought together, a new narrative emerges. After examining the proposals that take a step beyond the dual foundations of "use and beauty" in **Part 1: Respond**, one encounters collected endeavors that approach daily life from unfamiliar perspectives and draw closer to the artist's inner consciousness in **Part 2: Reflect**. Following this gradually segmented visual journey, the award-winning works, standing alone like solitary points, converge to form poetic worlds that embrace both narrative strands in **Part 3: Refine**.

Since its inception alongside the launch of the Cheongju Craft Biennale in 1999, the competition has continued with a consistent goal and motivation. It now functions not only as a platform for observing the shared sentiments of contemporary artists in each period (synchronicity) but also as a means of tracing the evolving trajectory of craft over the past 27 years (diachronicity). The accumulated outcomes—shaped by varying times and sensibilities—reveal new possibilities for craft through processes of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the competition will continue to serve as a site for such experimentation in the years to come.

Cheongju International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수상작 전시

물성의 서사 *Hands in Sequence:
A Narrative of Material*

Respond

Craft

Rellect

Winners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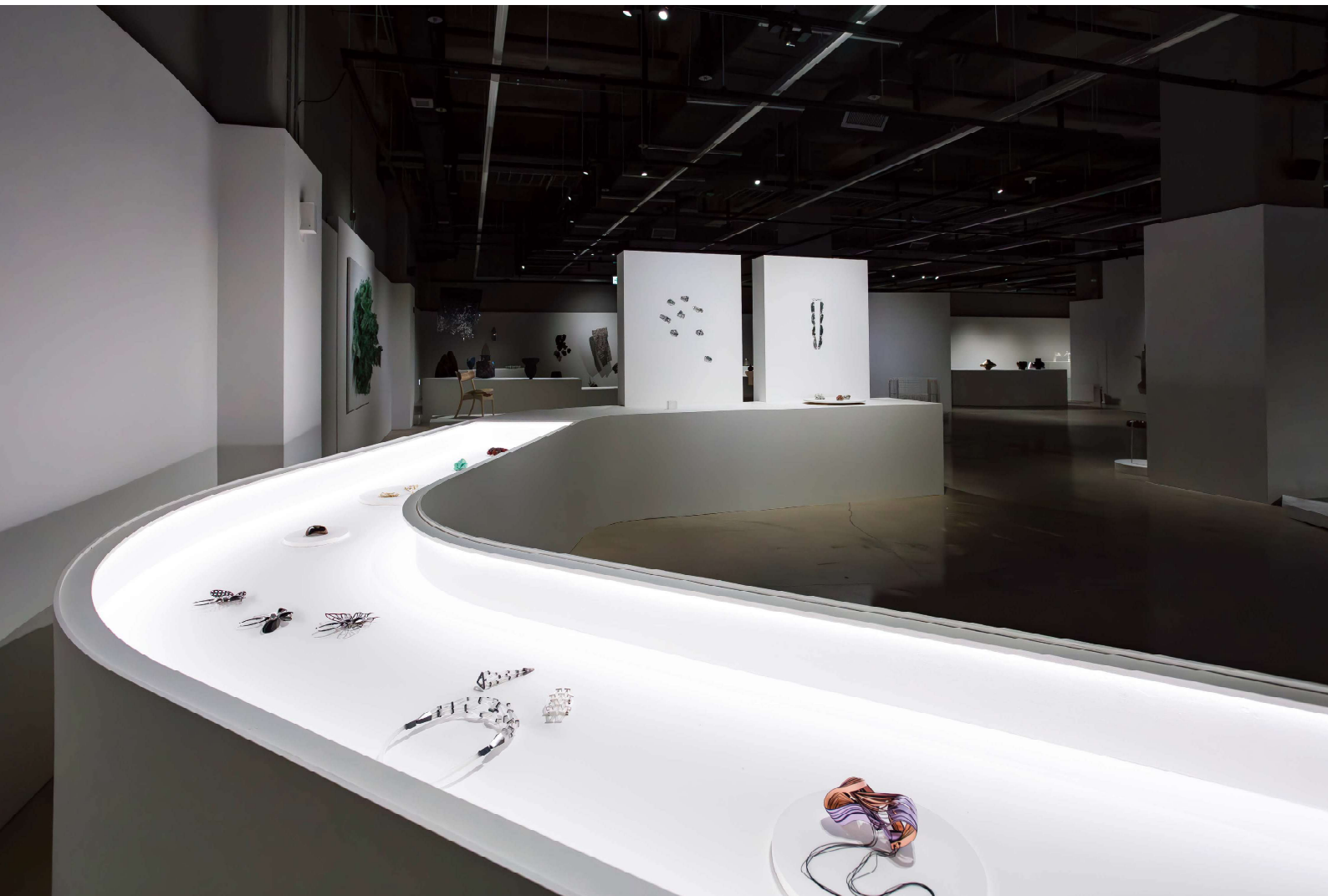
Reline

Competition
2025























은상 SILVER PRIZE

Intermediaries #4

<Intermediaries #4>는 "테르포노포이에틱 (terpnopoietic, 즐거움을 주는) 장식에 대한 연구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발상은 미술사가인 올레그 그라바르(Oleg Grabar)의 연구, 특히 장식을 관람자와 예술 작품 사이의 매개체로 보는 이론에서 출발한다. 그라바르는 "장식은 그것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즐거움으로 정의된다. 장식은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닌 감정이요 열정이자 아이디어가 되어 예술가와 장인이 창작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관람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의 속성이다"라고 설명했다. 나는 컵, 접, 받침, 각설탕 같은 다양한 오브제에 장식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일상의 물건이 예술 작품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극한으로 치달은 장식은 잠재해 있던 감정을 분출시키고, 관람자로 하여금 오브제와 그들의 관계를 탐색하게 한다. 나는 <intermediaries #4>와 같은 조각 연작을 통해 대중적인 노하우를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양피지는 오래전 악기를 꾸렸던 로제트(장미형 문양)처럼 단순한 장식적 역할이나 글과 삽화의 밑바탕 같은 일차적인 기능을 위한 재료로만 사용됐다. 그러나 이제는 점토나 목재, 식재처럼 그 자체로 예술적 표현을 위한 하나의 장식 재료로 거듭나고 있다.

The sculpture *Intermediaries #4* was born from research into "terpnopoietic" ornamentation (which provides pleasure). This reflection is based on the work of art historian Oleg Grabar and more specifically on his theory of ornament as an intermediary between the viewer and the work of art. He explains that an "ornament is defined by the feeling of pleasure that one feels when looking at it. It is no longer a thing, but an emotion, a passion, an idea, which affects everything that is created by artists and craftsmen. It is a property of the work of art that transforms the viewer." Stemming from a variety of objects, a cup, a saucer, and sugar cube, I explore, through the use of ornamentation, this transformation of the ordinary to the extraordinary, from the object to the work of art. The ornamental, taken to its paroxysm, frees its emotional potential and questions the onlooker with regard to their relation to the object. Through my work *Intermediaries #4*, I wish to revisit this secular know-how by developing a series of more personal sculptures. Going beyond its purely ornamental status in the case of the parchment rosettes that decorate ancient musical instruments, or when it is used as a simple support for writing or illumination, parchment transcends its primary functions and then becomes a creative material of artistic expression in its own right, in the same way as clay, wood, or stone.



마테오 크레마데스
Matéo CRÉMADES

프랑스
France

12×12×6.5cm, 염소 가죽 양피지 Goat skin parchment, 착색된 염소 가죽 양피지 Tinted goat skin parchment, 흑단 Ebony, 24K 금박 24K gold leaf, 925 은박 925 silver leaf, 구리박 Copper leaf, 14K 롤드 골드 14K Rolled gold nails, 2024

